

운동장에서 국제 음악 무대로... 리상길가수의 음악 인생

— “음악을 통해 고향을 알리고 우리의 노래를 세계로...”

운동장을 달리던 축구소년에서 연변의 유명한 성악가로 성장한 리상길(41세) 가수, 그는 조선족 음악의 진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국내외 무대를 종횡무진하는 음악인이다. 현재 연변가무단 성악부 부부장으로 연변문련, 조선족문화연구회, 길림성성악학회 등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그는 평양 ‘4월의 봄’ 국제성악경연대회에서 두차례나 금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민족음악 계승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지난 12일, 기자는 연변가무단을 찾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자신만의 음악세계로 조선족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리상길가수의 음악 려정과 예술철학을 들어보았다.

운명을 바꾼 노래 〈감주타령〉

도문시 석현진이 고향인 가수 리상길은 축구공을 차며 뛰놀던 평범한 소년이었다. 소학교 5학년이었던 그해, 학교 축구팀의 일원으로 활약하던 축구소년의 영화와 같은 ‘예술인생’이 시작되었다.

어느 하루 체육교원의 부재로 당시 학교 음악교원이었던 박범현선생님이 립시로 훈련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리상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 될 줄이야...

“지금 생각해도 꿈같은 일이었습다. 제일 좋아하던 축구운동화를 벗고 노래를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다.”

훈련 휴식시간을 리용해 운동장 한편의 그늘에 빙 둘러앉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던 중, 리상길은 테프로 익힌 립수원가수의 〈감주타령〉을 불렀는데 그의 노래를 듣고 박범현교원이 그에게 노래를 배워볼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고 그때로부터 리상길은 자연스럽게 음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날의 운명같았던 ‘운동장 캐스팅’을 그는 30년도 더 지난 지금도 여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성악수련기

“어린시절, 석현에서 기자로 도문과 연길을 오가면서 성악 공부에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다.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죠.”

그는 본격적으로 연변대학 예술학원의 전학자선생으로부터 신민요를 배우며 기초를 다졌고 2003년 룡정고중 성악 특장생으로 입학하면서부터 크고 작은 무대에 오르며 자신의 기량을 닦았다. 립성호선생의 제자로 별난 창법을 사사받으면서 고중을 졸업하고 순리롭게 연변대학 예술학원에

진학, 민요와 벨칸토라는 두가지 장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의 독보적인 기량은 2007년 연변대학 예술학원 성악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더욱 빛을 발했다.

연변가무단에서의 성장통과 도약

대학을 졸업하던 해, 해외유학을 고민하던 그는 지도교수였던 립성호선생의 권유로 연변가무단 입단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다.

음악공부를 더 해보려는 열망도 컸지만 류학 계획을 접을 수 있었던 건 ‘연변가무단’이라는 큰 무대의 유혹 때문이었다. 그러나 입단 첫째 내부 업무회보 공연에서 40여명의 성

악부 단원들중 최하위권인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는 좌절도 맛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발판 삼아 끊임없는 노력으로 꾸준히 자신의 업무 기량을 갈고닦았다. 결과 2024년 업무회보 공연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며 자신의 가능성과 성장을 보여주었다.

“흑력사’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 자신을 돌아보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되었죠.”

평양국제성악경연대회, 운명의 터닝포인트

2014년 4월, 그는 평양 4월의 봄 국제성악경연대회에 특별 초청받아 〈까투리타령〉을 열창,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경연을 두고 ‘할 말’이 있다며 그는 십년전 이야기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원래 이 경연에는 동료 가수인 박은화단 초청될 예정이었지만 사전 심사에서 그들의 듀엣 음원을 들은 심사위원들이 “이 남자 가수는 누구냐”며 궁금해했고 리상길도 특별히 함께 초청한 것이었다.

“평양에서의 경연이 어찌 보면 저의 예술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다. 존재감이 크게 없었던 제가 너무나 행운스럽게 국제경연에 참가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상치 못한 금상까지 받아안아 그 기회로 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깐요.”

전통과 디지털 시대의 조화를 꿈꾸며

최근 연변가무단은 라송화 부단장이 인솔하는 뉴미디어센터의 설립과 협력으로 틱톡에서 활발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24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계정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틱톡 생방송 업종생태대회에서 전국 32만 개 생방송 계정중 공식 인정받은 52개 우수 계정으로 연변가무단 공식계정과 리상길가수의 개인 계정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전통 음악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라이브 방송은 즉흥성과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을 읽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여 대중이 원하는 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전통음악은 여전히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고민이 늘 숙제인 거죠.”

현재 그는 전통 공연과 라이브 방송을 병행하며 드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음악 욕심이 많은 그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이 노력과 과정 또한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라며 힘차게 달리고 있다.

“류행음악은 자주 변해도 전통음악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리상길가수는 현대음악과 전통음악을 적절히 결들여 민족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음악 작업도 고심중이다. 후배 양성에도 관심이 많지만 아직은 “나 자신을 더 갈고닦아야 할 때”라고 그는 겸손하게 말한다.

초심을 잊지 않는 예술가의 길

돌보이는 가장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와 흥으로 그가 등

장하는 무대는 늘 중장년층 팬을 몰고 다니며 ‘아이돌급’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노래만 잘하면 가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통해 고향을 알리고 우리의 노래를 세계에 전하는 것이 진정한 가수의 길인 것 같습니다.” 리상길가수는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밝히며 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

음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는 리상길가수, 그 어떤 무대를 막론하고 마이크 앞에 설 때면 마음이 거북해지는 이 길이야말로 진정 자신의 운명이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해져만 간다.

“민족음악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꿈이자 사명입니다. 앞으로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음악의 진수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구소년에서 우리의 음악을 알리는 성악가로 성장한 리상길가수의 눈빛에는 초심을 잊지 않는 예술가의 열망이 여전히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다.

/ 김영화
김가혜 기자



최근 연변가무단은 라송화 부단장이 인솔하는 뉴미디어센터의 설립과 협력으로 틱톡에서 활발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중. 현재 리상길가수는 전통 공연과 라이브 방송을 병행하며 드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

무형문화유산 음악회에서 민족예술의 매력 뽐내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이 송원시 전고르로스몽골족자치현에서 열린 무형문화유산 음악회에서 민족예술의 매력을 한껏 뽐냈다.

11일 저녁,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은 초청을 받고 전고르로스문화생태보호봉사중심에서 주최하고 전고르로스몽골족자치현 민족가무전습중심 및 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에서 연합으로 주관한 ‘화려한 악장·2025 관동문화(송원) 무형문화유

산 음악회’에 참가하여 관객들에게 멋진 조선족 전통 예술 공연을 선보였다.

음악회에서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은 농악장단 〈사물놀이〉를 비롯해 녀성 2중창 〈도라지〉, 〈달타령〉을 부르며 조선족 음악예술의 독특한 윤풀과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달하여 현장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번 음악회는 관동지역의 중요한 무형문화유산 교류 및 전시 플랫폼

이였는바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제로운 공연은 송원은 물론 더 넓은 지역의 관객들에게 조선족 전통 음악예술의 깊은 저력과 독특한 풍모를 성공적으로 전파하고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관동지역 여러 민족간의 문화예술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계승, 그리고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 종합

[추천 공연]

온 가족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 〈오색아리랑〉

관객들을 위한 무대가 점점 풍성해지고 있다. 특히 근년에 연변이 문화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며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바 이러한 공연들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지역의 문화 혜택 정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족단위로도 좋고 친구들과의 나들이도 좋고 혹은 공연이 선사하는 강렬한 시각적 충격이나 감정적 공감대를 흥백 즐기고 싶다면 아래

의 공연은 눈여겨볼 만하다. 바로 연변로동자문화궁에서 공연 중인 연변가무단의 대형 창작가무시 〈오색아리랑〉인데 지난해 8월 첫 공연 이후 아름다운 무대효과와 독특하고 매력적인 서사로 폭넓은 호평을 받고 있다.

공연은 ‘오색변강’, ‘파란 아름다움’, ‘분홍꿈’, ‘하얀 순결’, ‘푸른 운치’, ‘붉은 혼’, ‘화려한 장편’ 등 7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음향, 조명, 영상 등 다양한 무대예술 수단을 활용해 경쾌한 춤과 우아한 노

래, 열정적인 선율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한편 이 작품은 올해 5.1절 기간은 물론 단오절 립후 기간에도 총 2회 공연되며 1,000여명 이상의 관객을 맞이했다. 공연은 변강의 풍정과 민족화합의 변강 이야기를 잘 풀어냄으로써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공동으로 단결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발전하는 정신적 기풍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

/ 본지종합

